

風水地理觀點에서 본 生態空間解析에 관한 研究

- 韓國의 傳統的 風水地理를 中心으로 -

현영조¹⁾ · 이동근²⁾

¹⁾ 서울환경계획연구소 · ²⁾ 상명대 환경조경학과

A Study on Analysis of Eco-space from a Standpoint of Poong-soo

- On the Ground of Korean Traditional Poong-soo -

Hyun, Young¹⁾ Jo and Lee, Dong Kun²⁾

¹⁾ Seoul Environmental Institute, ²⁾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Sangmyung Univ.

ABSTRACT

While the existing feng-shui is largely approached architecturally and geographically as positive place and negative place, the study is characterized by approaching and analyzing poong-soo environmentally.

The theory of Eco-city as one of modern-city theories is worthy of studying by analyzing the merits and demerits of it and combining it with poong-soo and making a new alternative theory.

Theory of Natural Energy and principle of Natural Balance. Thus, poong-soo ideas can be an important view of nature in analyzing the theory of Eco-city which is coming to the front these days.

In particular, we try to make use of poong-soo as a basic theory for a city planning and design by studying and analyzing and combining the merits and demerits of Eco-city with poong-soo and presenting a new alternative method of a stable and balanced 'refined city development'.

On the other hand, we connect 'theory with practice(or experience)' by covering all spaces variably from minimum unit space to city-space from the standpoint of poong-soo.

But, problem of the Theory of Eco-city from the view of poong-soo are too artificial and theoretical, even if ideal.

Conversely, from the view of Eco-city, the possibility of the practicability of Korean poong-soo is judged to be high. we can tell that among capital cities applied by poong-soo, historical cities like Beijing in China, Seoul in Korea and Tokyo in Japan are poong-soo cities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Eco-city.

Key words : *poong-soo, eco-city, theory of natural energy, poongsoo-ecospace*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의 국토는 급격히 훼손되고 있으며 난개발로 인한 자연재해는 더욱더 커지고 있다. 특히 무분별한 공간계획이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 있어서 우리의 전통풍수지리 관점에서 생태공간을 연구하기 위하여 생태도시 이론을 다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즉 훼손되고 있는 지구환경을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서 현재와 같이 조성되고 있는 생태공간을 우리의 전통적 풍수지리사상의 관점에서 재해석을 하여 본 연구의 새로운 언어인 풍수·생태공간이론(風水·生態空間理論)을 정립함으로써 삶의 질을 위한 인간적 환경문화공간(人間的環境文化空間)을 만드는데 이바지 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 전통적 풍수지리사상과 생태공간을 비교 연구하여 풍수의 핵심인 바람과 물의 흐름, 그리고 땅의 이치를 도시 생태계에 접목시킴으로써 세련된 균형도시 개발방법으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것은 우주생태계가 공생공존(共生共存)하고 허실상생(虛實相生)의 원리를 환경계획에 우선 적용하여 미래의 도시공간을 만드는데 기초적인 이론이 될 수 있다.

즉, 본 연구의 목적은 자연환경과 인위적인 환경을 연계시켜 인간적 환경문화도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풍수생태도시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공간이론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II.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시간적 범위는 우선 전통적 풍수지리사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사례조사를 고려와 조선시대를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생태공간을 해석하기 위하여 근·현대를 대상으로 한다. 공간적 범위는 우선 전통적으로 풍수지리사상의 연구를 위하여 한반도의 개경과 한양을 대상으로 하고 생태공간의 연구를 위해선 노르웨이의 버겐시와 일본의 다마신도시를 대상으로 한다. 내용적 범위로는 우선 전통적 풍수지리사상의 연구를 위하여 풍수지리사상의 정의와 접근방법을 그

리고 적용가능성을 도출하고, 생태공간의 연구를 위하여 생태도시이론의 장단점을 풍수지리 관점에서 생태적인 이론을 접목하여 훼손되고 있는 생태계회복을 위한 대안을 찾아낸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문헌조사와 현지답사를 종합하여 미래도시공간계획을 위해 한국 전통적 풍수지리사상과 생태도시이론을 접목하여 풍수생태공간론 창출을 시도하였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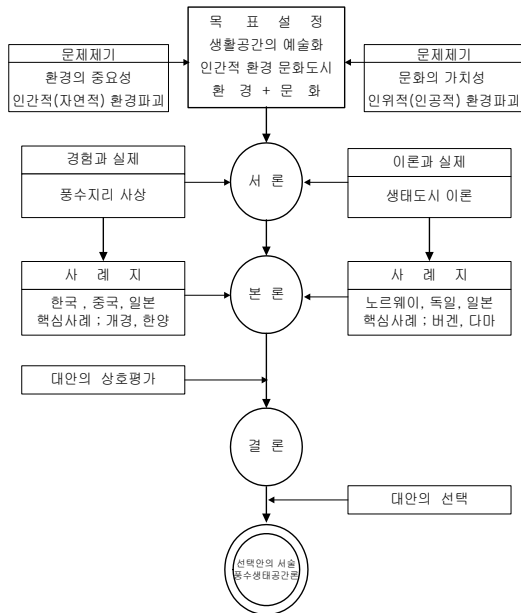


그림 1. 연구진행 과정

III. 풍수지리사상과 생태도시공간이론의 비교

1. 풍수지리사상의 접근방법

풍수지리사상은 자연에서 얻은 경험적 지혜를 음양(陰陽)과 오행설(五行說)에 의하여 음택(陰宅)의 묘터잡기와 도읍지, 마을, 집터 등 양택을 정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풍수지리사상을 지리학적 경험과 이론을 포괄하여 환경학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즉, 한국의 전통적 풍수지리의 독창성을 강조하고 현실성 있는 학문의 기초 자료로 정리하여 환경학적 이론으로 정립하려고 한다. 우선 신선사상(神仙思想)으로 접근하는 방법과 불교사상 그리고 유교사상에 의해서 접근하는 방법

이 있고 그밖에 각종 학설의 혼합과 순간적으로 느끼는 감(感)에 의한 풍수(Feeling Poong-soo)가 있다.

본 연구에서 총론적으로 분류하면 ① 민속신앙에 의한 풍수(원시적 풍수지리사상) ② 불교적인 해석에 의한 풍수사상(불교적 풍수지리사상) ③ 유교적인 해석에 의한 풍수사상(유교적 풍수지리사상) ④ 실학사상에 의한 풍수사상(실학적 풍수지리사상) ⑤ 감각에 의한 직관적인 풍수사상(독창적 풍수지리사상) 이상과 같이 크게 5가지 형태의 전통적인 풍수사상으로 요약할 수 있다(표 1).

표 1. 풍수지리사상의 접근방법

순 위	구 분 근 거	요 점	사 례 지	
			시 대	도 시
1	원시적 풍수지리 사상	민속신앙에 의한 풍수(전통적)	고조선	강화 (천단)
	신선사상, 무속신앙			
2	불교적 풍수지리 사상	불교적 해석에 의한 풍수(전통적)	고려	개경
	승려: 도선국사, 무학대사			
3	유교적 풍수지리 사상	유교적 해석에 의한 풍수(전통+외래)	조선	한양
	유학자: 하륜, 정도전			
4	실학적 풍수지리 사상	실학사상에 의한 풍수(개화)	조선	택리지에 의한 팔도(八道)
	실학자: 이종환			
5	독창적 풍수지리 사상	감각에 의한 직관적인 풍수(진행중)	한국	—
	환경 계획가, 도시계획가, 조경가, 건축가 등			

1) 원시적 풍수지리사상

동양문화의 시원지(始源地)로 알려진 한반도를 중심으로 7000년의 숲과 돌과 물의 문화와 관련된 사상을 바탕으로 한민족은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에 선돌에서와 같은 음양사상(陰陽思想)과 더불어 천지인(天地人)의 삼재(三才)가 일석삼극(一析三極)을 이룬다는 고대사상을 발전시키면서 우주의 기본원리가 활용되었다. 이밖에 물과 빛과 바람에 의해 달라지는 땅의 모습을 가름하는 풍수지리(風水地理)도 터득하게 되었다(민경현, 1998)는 학설로 미루어 보아 풍수사상은 주변국가보다도 훨씬 먼저 한

반도에서 신선사상(神仙思想)을 바탕으로 땅의 이치(理致)를 이해한 우리의 전통적 지리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기원전 2300여년 전에 조성된 경기도 강화의 마니산 천단(天壇)은 지상최고의 큰 성으로 하늘이 천부(天符)와 질서를 계승할 자리이며 한때에는 인간의 길(吉)과 흉(凶)을 예견하는 풍수지리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시기에 자연을 대하는 심성은 민속신앙에 의한 자연관으로 원시적 풍수지리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민속신앙에 의한 원시적 풍수지리사상은 학문의 형태는 갖추지 못하였지만, 한국의 원시신앙은 자연숭배의 사상에서 유래되어 왔기 때문에 자연을 훼손하거나 함부로 하지 않고 자연에 살며시 끼워지는 감히 정복하지 못하고 신성시하고 그리하여 그것과 잘 적응되는 경관문화를 이루어 나갔음을 알 수 있다(이형렬, 2000).

이외에도 기원전 800~500년경에 신교, 선교 또는 화랑교라 불리는 현묘한 도(道)인 풍류가 발생하면서 신선사상(神仙思想)(민경현, 1998)이 한민족 고유의 사상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신선사상은 신교(神敎), 선교(仙敎) 등으로도 불리는 우리민족의 전통적인 사상으로서 자연을 숭상하고 단군에게 제사하는 일종의 무속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 후에 신선사상은 불교와 유교에 접목되면서 전통적인 민속신앙으로 발전하여 불교적인 풍수와 유교적인 풍수에 영향을 주면서 전통적인 풍수이론의 기초로 작용한다.

2) 불교적 풍수지리사상

불교적 이상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불교의 교리에서 파생된 정토신앙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로 그 신도들이 그들이 법당을 세운 사찰자리들이다(최창조, 1998). 정토신앙(淨土信仰)은 미타(彌陀) : 아미타불(阿彌陀佛)을 말함)정토(彌陀淨土)인 극락(極樂)에 왕생(往生)하여 그 후에 성불(成佛)할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불교적인 심성은 고유의 신선사상과 동화되

어 자연생태계를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집터를 잡는데도 자연에 순응하려고 하는 지혜를 갖게 된다. 바로 이러한 사상이 우리만의 자연 순응적인 사상으로 전통적인 풍수지리 안목에 기초가 된다. 대표적인 예로 도선(道詵: 827~898년)의 풍수비보설(風水裨補說)을 들 수 있다.

도선(道詵)의 풍수사상은 한국 전통적 풍수의 훌륭한 사상으로 자연생태환경과학이면서 생태미학임을 확인하게 된다. 즉, 자연적인 지형상의 모자람을 인위적으로 보완하여 좋은 지형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자연의 풍수여건을 보완하려는 풍수비보(風水裨補)는 훌륭한 지혜라 할 수 있으며 지덕비보설(地德裨補說)을 의미한다. 따라서 도선의 풍수지리사상은 불교적인 해석에 의한 대표적인 불교적 풍수지리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도선의 형국론은 ‘풍수지리 신안계 물형설을 신라말엽에 도선대사(827~898)가 자연원리를 연구한 학설이다’는 위의 학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풍수지리 신안계 물형설(風水地理 神眼系 物形說)을 자연상태 산체(山體)의 모양을 만물의 형상과 비유한 물형의 핵심부에 정혈(正穴)을 결정하는 학설이다.’ 물형설은 고대로부터 공개된 서적이 없으므로 상세한 것은 알 수 없고 구전으로 전해오는데 의하면, 신라말엽에 도선대사(道詵大師: 826~898)와 일행선사(一行禪師: 중국당대(唐代) 밀교(密敎)의 중)가 산세를 보며 대담한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이 ‘도선비기(道詵秘記),’이니 이 시대부터 본 물형설의 유래가 전해 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도선대사와 일행선사는 동시대 사람이 아니기에 백년 앞선 일행의 풍수지리를 도선이 사숙(私塾)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안계에도 불교계의 일맥과 유교계의 일맥이 전해왔는데, 신라말 도선대사와 고려말에서 조선초의 무학대사는 불교계였고, 정도전은 유교계였으니 이로서 유불양계(儒佛兩系)로 전해온 것을 알 수 있다.

3) 유교적 풍수지리사상

풍수의 요체는 천지인상관적기론(天地人相關

의氣論)에 있으며 이것은 자연스럽게 풍수의 윤리성을 강조하는 논리로 귀결된다(최창조, 1990)라고 하였듯이 한국풍수는 시대적으로 신라말의 도선(道詵)을 중심으로 전후를 우리의 전통적 풍수와 외래적 풍수로 구분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고조선이 이전부터 신선사상에 의하여 도읍지와 마을 그리고 주거공간을 정하였다는 학자들의 연구발표를 유념하여야 한다.

실제로 이론을 정리하게 된 시기는 한(漢)대에 와서 음양오행설을 빌려 쓰면서부터 이었다. 풍수서의 원조라 할 수 있는 「청오경(淸鳥經),」도 이때에 나온 것이라 한다. 후에 당(唐)의 곽박(郭璞)의 「금낭경(錦囊經),」이 있고, 명(明)의 봉의량(奉議郎) 호순신(胡舜申)이 지은 「지리신법(地理新法),」, 북암노인(北巖老人) 채성우의 저서인 「명산론(明山論),」 등이 있는데 이러한 책들은 조선시대에 있어 음양지리과(陰陽地理科)의 과거용 교과서로 쓰였음은 「經國大典,」이나 그 뒤의 여러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밖에 중국서적으로 「인자수지(人子須知),」 「지리대전(地理大典),」 등이 있다. 실제 산수를 순유(巡遊)하면서 산수의 길흉을 엮은 대표적인 책으로 선승(禪僧)도선(道詵)이 지었다는 「도선비결(道詵秘訣),」이 있고, 그 외에 지리총론(地理總論) 「요집초문(要集抄文),」 등이 있다.

고려왕건과 조선의 이성계는 모두 풍수신봉자이다. 문헌에 보면 묘청, 하륜, 정도전, 무학, 이익, 윤선도, 정약용 등도 크고 작은 일에 풍수를 적용하지만 조선 말기에 이증환이 「택리지(擇里志),」를 저술함으로써 우리 나라 최초의 지리서라고 하는 풍수관련 이론이 새롭게 해석된다. 이것을 본 연구에서는 실학사상에 의한 풍수지리 사상으로 분류하였다.

4) 실학적 풍수지리사상

이증환의 택리지(擇里志), 사민총론(四民總論) 첫줄에서 「古無士大夫, 民也, 民有四, 士賢而有德, 不仕者, 或爲農爲工爲賈…」(이증환, 1973)라고 적고 있다. 옛날에는 사대부라는 것이 없었고 모두 민(民)이라 하였다. 민에는 네 가지가

있었는데 선비로서 어질고 덕이 있는 사람이려면 나라의 임금의 벼슬을 시켰고, 벼슬을 하지 못한 사람은 농·공·상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전제하고 사농공상(士農工商)에 종사하게 되는 것도 자연인 지리(地理)가 적용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또 이중환은 「然人傑地靈...」(이중환, 1973) 즉, 「인결은 땅의 영(靈)으로 태어나는 것, 이라고 말한다.

이와 같이 자연과 인간을 연계시키고 있다는 것은 우리 나라는 전통적으로 땅의 이치(理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외부로 보이는 시각적 자연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연의 내적인 이기(理氣)를 총체적으로 통찰(洞察)하여 자연의 섭리를 이해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중환과 같은 실학사상가들이 자연을 통찰하는 지혜는 대단히 현실적인 요소가 많이 있어 우리국토를 이해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실학적 풍수지리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5) 직관적 풍수지리사상(독창성 풍수지리사상)

타고난 감각에 의해서 신선사상, 불교사상, 유교사상 그리고 실학사상과 관계없이 현대적 학문을 토대로 가변적인 감각으로 자연을 통찰한 후 바람(風)과 물(水)의 이동(流)을 지리적(地理的)으로 감정평가 할 수 있는 사상을 직관적 풍수지리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종합적인 학문의 연계와 합리적인 사고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2. 풍수지리사상의 현대적 도시공간 적용 가능성

본 연구에서는 한국적 풍수지리 사상을 5가지로 분류하여 특징을 설명하고 「풍수지리는 이론이 아니고 실제경험에서 얻어진 생활철학임과 동시에 경험적 과학, 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인간적 환경문화도시」 만들기를 전제로, 인간의 소망이 무병장수에 있다면 인간이 생활하는 공간은 “살만한 곳” 이어야 한다. 그 살만한 곳을 찾는 방법으로 이중환은 택리지(擇里志)의 「복거총론(卜居總論)」(이중환, 1973)에서 밝힌 바 있다.

산수(山水)는 산과 물 그 자체는 물론 지역(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논하고 있다. 즉, 버려진 땅, 쓸모없는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전통적 풍수지리사상의 특징이며, 이것은 현대적 도시공간에 적용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풍수를 음택을 찾는 사상이론쯤으로 생각하고 묘지를 찾는 데 사용한다면, 그것은 이미 자연생태의 균형을 깨는 단견(短見)으로서 지구 생태계 회복과 보존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

풍수지리사상은 생태도시이론과 접목하여 새로운 실존사상으로 거시적이면서 동시에 미시적인 요소의 균형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풍수지리는 사자(死者)보다는 생자(生者)를 위한 공간계획의 중심이론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와 이웃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역사적인 도시와 마을 주생활공간과 차(茶)문화공간까지 풍수지리가 예외없이 응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총괄적 생태도시의 개념

1) 생태도시(生態都市)의 원형과 정의

생태도시란 생태학적으로 건전한 도시를 말하지만 현실로 그러한 도시는 존재하기가 어렵다. 생태도시의 힌트는 옛날 유럽의 도시와 마을에서, 아메리카 남서부의 인디안들의 푸에블로라고 부르는 부락중에서 볼 수 있다(Richard, 1987).

이러한 도시에는 토지와 에너지의 소비를 적게 하고 땅에서 얻어지는 건축재료를 이용하였다. 여러 세대에도 천천히 변화하는 마을은 경관까지도 자연의 리듬과 아름다움과 자연스럽게 어울린다. 또 다른 생태도시의 힌트는 태양에너지, 풍력, 재활용 등의 기술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생태도시를 ‘지금까지의 환경조화형도시(環境調和型都市)’로 정의하는 학자도 있다. 예를 들면 「에코토피아(Ecotopia)」(內藤, 1992)라는 문헌중에 ‘새로운 윤리에서 오는 도시의 평가기준’에서 ‘에코폴리스’의 의논과 실천의 역

사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우선 다양한 목표는 계획하는 사람의 사고 중에서 체계가 세워지고 그 외에 사람들과 혼란감을 준다. 그 최대의 이유는 ‘목표와 수단’이 혼재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목표란 조금만 난해해도 윤리규범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새로운 윤리’로 현대세대의 생활환경의 보전과 다음세대의 생활환경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다.

이러한 양자의 세대가 서로 상극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생태도시 만들기의 최대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즉 이러한 관점은 생태도시만들기의 핵심적인 과제로서 지금까지 살아온 세대와 앞으로 계속해서 살아 갈 세대간에 상생(相生)의 방법이 수립되고 제시되어야 한다.

2) 생태도시의 개념에 대한 시각차이

생태도시를 단순히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도시라는 좁은 의미로 이해하려 한다면, 녹색도시(Greencity)나 어메니티도시(Amenity town)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그리고 생태도시를 시민들이 보다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친환경적인 도시인 중간 정도의 범위로 파악하려면 환경보전도시나 건강도시(Hygeiacity)로 표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생태도시를 보다 광의로 그리고 적극적 개념으로 파악하려 한다면

자연 생태계의 보전과 복원은 물론 에너지와 수자원의 순환적 이용이 가능한 도시시스템을 구축할 뿐 아니라, 그러한 하드웨어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소프트웨어 즉 도시사회, 경제적 구조까지를 친환경적으로 변화시키는 지속가능한 도시(Sustainable city)의 개념으로 이해되어져야 한다(김일태, 2001).

그것은 풍수지리관점에서 지역의 전통적 지혜와 잠재력을 특성화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을 의미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국토에는 생태도시이론만으로는 해결점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역의 특성에서 표출되고 있는 풍수지리의 지혜를 기초로 하여 주변국가 환경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가변적 계획이론이 창출되어 실용적으로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IV. 풍수지리사상과 생태도시 이론의 특징

1. 풍수관련 문헌에 나타난 특징

풍수지리 관점에서 생태공간을 해석하기 위하여 풍수관련 문헌을 조사하여 그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표 2).

2. 생태도시관련 문헌에 나타난 특징

생태공간을 해석하기 위하여 생태도시의 관

표 2. 풍수 관련문헌과 그 특징

관련문헌	저자	발행일 (발행처)	풍수의 정의 (특징)
	역자		
실용풍수지리	김항배	1997 일산출판사	천지의 기(氣), 즉 음양의 기는 땅 속에서는 생기가 되지 만, 땅위에서는 바람도 되고 구름도 되며 비가 되기도 한다. 풍수지리의 핵심인 생기(生氣)는 물에서 생성되고 혈(穴)에 응취된다.
풍수지리 (집과 마을)	김광언	1998 대원사	풍수는 음양오행설을 바탕으로 땅에 관한 이치(地理)를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바람은 기후와 풍토를 물은 물에 관한 모든 것을 가리킨다.
숲과 물과 돌의 문화	민경현	1998 예경	풍수란 생물이 살고 있는 땅과 인간과의 근원적 관계를 밝힌 것으로 山,水,風,光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기(氣)의 발전 양상을 인간의 길(吉)과 흉(凶)에 연결하는 사상이다. 한편 도선(道洗)의 풍수비보설(風水裨補說)이 나온 후에는 자연의 풍수여건을 보완한다.

표 2. 풍수 관련문헌과 그 특징(계속)

관련문헌	저자	발행일 (발행처)	풍수의 정의 (특징)
	역자		
천년 만에 한국이 세계를 지배한다.	박민찬	1998 자민사	풍수지리란 인간이 자연의 영향을 이용하는 것이다. 산수의 형세나 지형을 살펴서 사람에게 미칠 영향인 길흉화복을 판단하는 자연과학이다.
풍수지리와 건축 (풍수지리설 발생배경에 관한 분석연구)	박시익	1997 경향신문사 1987 고려대학교	풍수지리에서 땅의 기운을 분석하는 가장 중요한 대상은 산과 물이다. 풍수지리설이 대규모적인 국가의 도읍지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적용된다.
서울의 경관 변화	서울학 연구소	1994 서울시립대	형세들은 모든 수도풍수론에서 중요시하는 명산길지(名山吉地)형상을 이루는데 아주 큰 몫을 하는 것들이다.
길한터 흉한터	이익중	1994	풍수지리학은 기존의 동양철학과 현대 인체공학 그리고 자연공학을 접목시킴으로써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해명과 증명이 확인되어야 한다.
택리지(擇里志)	이중환	1751	사람이 살 수 있는 이상적인 조건으로 지리(地理), 생리(生利), 인심(人心), 산수(山水)를 꼽고 그 상호관계를 논한다.
	이영택	1978 삼중당	
택리지 (한글세대를 위한 우리옛글)	이중환	상동	지세도 좋고, 생업도 넉넉하며, 인심도 좋고, 경치도 좋은 곳이 사대부가 살만한 곳이다.
	허경진	1999 한양출판	
택리지 (청소년을 위한)	이중환	상동	터를 잡는데 주로 풍수론을 활용했던 당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같은 견해는 과학적이고 실증적이며, 오늘날 우리가 살 곳을 정하는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과학 문화재단	2000 서해문집	
도선국사 따라 걷는 우리땅 풍수기행	최원석	2000 시공사	도선의 사상은 '국토산천의 깨달음이자 보살핌'이라고 정의한다.
좋은 땅이란 어디를 말할인가 (한국풍수의 이론과 실제)	최창조	1990 서해문집	풍수의 요체는 천지인상관적기론(天地人相關的氣論)에 있으며 이것은 자연스럽게 풍수의 윤리성을 강조하는 논리로 귀결이 된다.
요철요 (凹凸凹)	현영조	1997 CA.현대 건축	풍수지리는 자연과 인간관계를 다루는 지혜이다. 풍수지리는 환경계획과 환경공학을 동시에 다루는 학문이다. 비명당을 명당으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하다.
Landscape planning of the tomorrow Amenity town	前田豪	1993 日本造園學會	江戸의 경우 : 四神相應의 원리이용. 예)東京의 玄武는 富士山으로 도쿄에는 '후지미(富士見)'라는 지명이 많이 남아 있다. 후지산은 동경(東京)의 상징이다.
風水とまちづくり 戰略	上草綱一	2001 落合英秋	풍수는 風과 水라는 문자로 구성되어 있다. 영어로는 Fengshui Chinese Geomancy라고 한다. 풍수는 고대과학이다.
공통점	풍수지리는 ①천지인상관적기론과 자연비보설 또는 지덕비보설이 핵심이다. ②지리(地理), 생리(生利), 인심(人心), 산수(山水)의 상호관계이다. ③풍수로(風水路)의 원활한 흐름이 중요하다.		

표 3. 생태도시 관련문헌과 그 특징

관련문헌	저자	발행일 (발행처)	생태도시의 정의 (특징)
생태도시 계획론	김귀곤	1993 대한교과서	자연생태계에서 배운 지속성 영위의 조건을 고려해 자립성, 안전성, 다양성 그리고 순환성의 특성을 감안한 생태도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생태도시가 필요한가?	김귀곤	2001 환경과 조경	생태都市는 환경지속성지수를 높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도시이다. 세계 경제 포럼에서 발표된 평가방법.
생태도시조성을 위한 추진전략	김일태	2001 다락방	생태도시란 도시를 하나의 유기적 복합체로 보아 다양한 도시활동과 공간구조가 생태계의 속성인 다양성, 자립성, 순환성, 안정성 등을 띠도록 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공존공생 할 수 있는 도시.
친시민성도시 공공공간	김세용	상동	바람직한 생태都市는 공동체성이 풍성하고, 인간과 환경이 적절한 균형을 갖추어 나가는 모습일 것이다.
생태도시를 위한 자원·폐기물 관리체계	김정훈	상동	생태도시란 인간이 만든 물질문명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도시를 자연환경과 대립적 관계에 서지 않고 상호 조화롭게 하자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환경친화적 도로 건설사업방안	변병설	상동	도로의 생태지향적 개발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생태지향적 공간 조성을 통한 지역문화형성-생 태마을 가꾸기(일본)	유상오	상동	일본의 역사문화의 관심,-문화예술마을 가꾸기(文化のまちづくり) 최근의 마을 가꾸기 활동은 '생태+지역+문화+쾌적'등 여러 가지 요소를 결합하는 다원적 운동양식을 가지고 있다.
독일 도르트문트의 친환경적인 첨단산업단지계획 사례	허영록	2001 다락방	유리한 입지선정, 질 높은 도시경관, 푸르고 쾌적하고 건강한 근무지의 주변환경, 이미지가 좋은 위치들은 경제추진과 생산성 향상에 매우 커다란 기여를 한다는 것을 사례지를 통해 증명하고 있다.
유럽의 환경친화적 도시개발-독일의 생태마을 조성사업	조진상	2001 월산	오펜하우젠 생태마을 조성사업은 전통적인 마을정비사업의 범위를 벗어나 자연 생태 환경의 적극적 보호와 사회·경제적인 측면을 포함하는 통합적 및 종합적 마을개발계획에 속한다.
생태도시 조성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사업 최종보고서	이동근외	1996 환경부	생태都市는 보는 관점에 따라 지속가능한 미래도시상으로서의 생태도시, 유기체론에 입각한 도시계획으로서의 생태도시, 순환형 사회구조와 생활양식의 실현을 위한 생태도시로 볼 수 있다.
에코토피아	內藤正明	1992 日刊 工業新聞社	생태도시(Ecopolis, Ecocity, Ecotown)는 환경조화형도시(環境調和形都市)라고 한다.
Ecocity Berkeley	Richard Register	1987 작업소	Ecocity는 생태학적으로 건전한 도시이다. 현실로 그러한 도시는 존재하지 않는다. Ecocity의 힌트는 고대 유럽의 도시와 마을 아메리카 남서부의 인디안들의 푸에블로라는 부락중에서 발견된다.
공통점	생태都市는 ①지속가능한 도시에 접근. ②인간과 자연이 공생공존하는 도시로 유도. } 이상적도시 ③Ecocity는 생태학적으로 건전한 도시.		

문헌을 조사하여 그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표 3).

3. 풍수지리사상과 생태도시이론의 장단점 접목

풍수관련문화와 그 특징 표 2. 생태도시 관련문헌과 그 특징 표 3.에서 풍수지리의 사상과 생태도시 이론의 관련 문헌에 나타난 특징에서 알 수 있듯이 두 가지 논리는 동서양접근 방법의 차이가 있다. 즉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를 해석하는 방법의 차이와 인간이 자연을 이용하는 상반된 이론의 방법이다. 다시 말해서 동양적인 사고가 자연에 순응하면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자연 순응형」이라고 한다면 서양은 자연을 이용하려는 「자연 이용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는 지구에서 양대 사상으로 대두되었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비추어진 서양의 사고가 전 세계를 주도하면서 지구 생태계는 서양식으로 해석되고 개발되었다. 그동안 동양은 기력을 잃고 사상을 유보하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서양의 과학적인 논리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단지 그 논리가 지나치게 비약하여 이용되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다. 그것은 시각적인 경제성장에는 도움을 주었지만, 엄청난 속도로 지구 생태계가 파괴되는 경제와 환경이 충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즉 인류의 과제는 경제와 환경의 충돌이 아닌 환경과 경제의 균형발전이다.

이와 같이 서양식 인간위주의 물질적 개발방법이 경제적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공간은 점점 인간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그에 반하여 동양의 사고는 비과학적인 것 같지만 인간과 자연이 공존 공생하여 지구 생태계를 보호하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을 향유하고 있다. 즉 경제의 확대는 삶의 질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세계는 경제성장과 반대로 지구 곳곳에서 각종 자연적인 재앙(재해)이 끊이지 않는다. 이것은 경제위주의 개발논리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동양보다 먼저 개발의 악영향을 경험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생태도시라는 대안을 제시하

게끔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더 이상 개발을 중시하면 지구생태계의 훼손은 더욱더 악화되어 이를 제어할 수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동양적 지혜가 주도되어 서양의 새로운 이론과 공감되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것은 바로 지금 동양의 풍수지리사상과 풍수의 핵심인 ‘천지인상관적기론(天地人相關的氣論)과 자연비보설(自然裨補說)’을 생태도시이론과 접목시키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문자 그대로 바람과 물(風水)의 흐름과 땅의 이치(地理)를 균형 있게 계획한다면 파괴된 지구생태계 회복과 아직도 보전가치가 충분한 지역(도시)을 보전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흙의 이동은 지리와 생태에 큰 변화를 주기 때문에 풍수 못지않게 토양과 그 표피의 이동은 철저히 계획되어야 한다. 그곳에는 생태계의 최소단위공간의 균형이 잡혀있는 미생물의 서식지이다.

V. 사례지 연구

1. 풍수지리가 적용된 사례지

1) 고려의 개경



그림 2. 송도 개략도(민경현, 1998)

개경은 북으로 송악이 둘러있고, 남으로 용백산(龍岬山)을 바라보는 분지에 자리 잡았다

(주남철, 2000). 전통적으로 민속신앙과 불교적인 사상과 생활에 의한 접근방법으로 도선국사의 핵심적 풍수관이라고 할 수 있는 비보(裨補)가 공간을 만드는 기본으로 응용되었다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만약 고을을 부소산의 남쪽으로 옮기고 산에 소나무를 많이 심어 산등의 바위들이 보이지 않도록 한다면...” 라는 대목에서 고려가 건국하기 전부터 생태환경조건에 부족함이 있을 경우 지형을 보완해서 마을을 자연균형적으로 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개경을 수도로 정할 때의 주요사상은 전통적인 신앙의 관성을 연계시키면서 불교적인 해석에 의한 풍수사상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신선사상(神仙思想)과 불교사상의 접목이다.

일례로 풍수에는 규봉(窺峰)이라는 용어를 쓴다. 명당 바깥쪽에서 명당안을 엿보는 듯한 봉우리가 있을 때 이를 규봉이라 한다. 당연히 풍수에서는 규봉을 꺼리며 원칙적으로 이를 금기시한다. 그리고 임진강을 중심으로 북쪽에는 동서로 길게 송악산이 개경(개성)의 배산이 된다.

비교적 산세가 동서로 수평적이다. 수평적인 선은 객관적으로 편안하고 안정감이 있다. 물론 풍수지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송악산은 개성의 주산이면서 배산이 된다. 그러나 송악산 남쪽에 송악산과 직각적인 방향으로 파주별관을 3개의 산이 두 개의 협곡을 이루고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다. 이 3개의 산은 송악산 쪽에서 남쪽을 향하여 좌측에 감악산과 우측에 파평산 그리고 중앙에 설마산이 있어 자연적으로 두 갈래에 남북을 관통하는 양호한 협곡이 있다. 그 당시에도 전술적으로 중요한 지형이지만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지금도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다. 전술적으로 중요하다는 의미는 국토를 방어하고 곡식을 생산하고 인심을 안정시키는데 기본적인 풍수적 조건이 된다. 이곳에서 조금만 더 남쪽을 바라보면 북한산줄기가 조선의 한양(지금의 서울 종로구와 중구일대)이라는 곳으로 향하여 뻗어가고 있다. 북한산의 줄기가 남쪽으로 뻗어가다가 접을 찍는 부분이 북악산(北岳山)이다. 다시 말해서 개성의 송악산을 배경으

로 개성지역과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파주지역에서 펼쳐지는 지형은 풍수적인 안목이 없더라도 자연적 조건이 좋은 땅으로서의 평가는 가능하다.

약 1,100여년 전에 사용되던 개경(지금의 개성)은 송악산을 배경으로 하고 넓게 펼쳐진 자연생태환경으로 본다면 좋은땅(明堂)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풍수공간(風水空間)인 임진강을 도시중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지배자를 위해서는 명당일지 모르지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도시형태이다.

풍수는 이와 같이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지세를 장풍국(藏風局)이라 한다. 개성의 지세가 장풍국이라면 송악산이 주산(主山)이면서 진산(鎭山)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개성시내는 해발 20m에서 30m에 지나지 않으며 만월대의 정궁인 회경전 터가 50m이다. 그러나 해발 489m인 송악산의 상대적 높이(比高)가 훨씬 높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만월대의 풍수적 특징은 남북한의 두 학자(최창조, 송경록)가 밝혔듯이 건축물의 배치는 장풍국의 분지형으로 자연적 조화에 의해서 이루어 졌고 비보적 풍수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선국사의 술법이다. 즉, 불교사상에 준하는 풍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성은 대표적 장풍국의 땅이다. 그래서인지 개성시가지가 좀 우중충한 것이 사실이었다. 분지라 매연물질이 잘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이다(최창조, 1998).

즉 풍수로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여 공기오염이 심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개경이나 한양과 같은 대도시에 세워지는 건축물의 높이와 규모는 도시생태환경에 엄청난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다. 도시의 크고 작은, 또한 높고 낮은 건축물은 크고 작은, 또는 높고 낮은 산이라고 생각한다.

즉 「건축물은 인공산(人工山)이다」라는 개념으로 도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건물의 배치, 규모, 높이, 방향은 도시생태계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풍수토(風水土)에 흐름과 이동의 원활성을 저해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공기의 이동인 바람(風)의 차단과 변형도 가져오고 습도를 조절하는 물의 흐름(水)을 막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와는 달리 현대도시의 공해적 요소인 공기오염, 수질오염, 소음진동에 관한 오염은 대부분 인공산(人工山)이라고 하는 건축물이 핵심적인 공해요소가 된다. 다시 말해서 콘크리트(Concrete)숲인 도시건축물군(群)은 실내에서 나쁜기(氣 : 열기, 소음, 진동, 분진, 악취 등)를 도시(건물밖)로 정화하지 않고 배출한 오염된 공기가 갈 길을 잃고 정체되어 도시환경이 악화되는 일례가 된다. 이것은 풍수의 진로를 건축물이 정체 및 변형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2) 조선의 한양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고 수도를 옮기는데 풍수학자들의 안목이 큰 역할을 했듯이 이성계가 정권을 잡고 수도를 정하는 문제도 기존의 도시의 수구세력과 도시민의 갈등과 새로운 마음을 새로운 장소에서 정치를 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어찌되었든 국가의 중대사를 위하여 크고 작은 터를 잡는데 풍수지리가 생활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점에서 고려의 개경에 대한 풍수와 조선의 한양에 대한 풍수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개경은 송악산이 수평적으로 주산(主山)이면서 배산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자연환경을 비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부소산에 소나무를 많이 심으면 삼국을 통일할 인물이 나온다”고 하는 식에 지형지물을 비보하는 것은 좋은 예라고 생각한다.

한편 한양은 북악산을 배산으로 하고 있으나 개경의 송악산과는 달리 북악산은 탑처럼 우뚝 서있는 산이지만 동서가 아닌 대체적인 줄기가 남북으로 뻗어 북한산과 연계되고 있다.

송악산에 비해 험찬 산봉우리가 맥을 이루면서 백두대간과 연결되어 현(玄)을 이루고 있다. 현은 산줄기의 굽이치는 형상으로 용(龍)을 상

징하기도 한다. 장풍국의 지세를 한 개경과 득수국의 지형을 가진 한양은 비슷하게 느낄 수는 있지만 자연생태계에서 내포하고 있는 풍수지리적인 요소는 대단히 큰 차이가 있다.

서울의 경우는 북악산이 342m이지만 남쪽에 한강에 감싸인 넓은 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낮게 보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북악산을 주산으로 삼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그 뒤에 있는 837m의 북한산을 진산으로 두게 되는 것이다. 그래야 조산(朝山)인 632m의 관악산을 압도할 수 있는 까닭이다(최창조, 1998).

관악산을 압도하는 북한산은 현무(玄武)에 해당되지만 그 산줄기가 마치 용같이 꾸불거린 다하여 현(玄)이라고 하고 용이 뜻이 있는 명당의 대표적인 진산(鎭山 : 도읍의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는 산)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조선의 수도 한양은 한나라의 수도역할을 충분히 하였지만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조선의 한양과는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한국의 서울

지금의 서울을 풍수지리사상으로 분석한다면 이미 청와대의 배산인 북악산은 주산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왜냐하면 한양의 육조거리의 모습이 고층빌딩으로 들어서 청와대는 주변 환경에 세워진 많은 건축물로 옛보임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주변에 있는 건축물들은 풍수에서 금기시하는 규봉(窺峰)에 해당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국토에 알맞은 자연생태계를 다루는 지혜를 무시하고 경제위주의 서양식 도시계획과 건축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수도서울은 공해(특히 공기오염)지대로 이미 변했으며 조선의 수도 한양과는 도시생태환경이 전혀 다른 곳이 되고 말았다.

이런 도시환경파괴와 역사문화공간의 파괴는 서울을 공해와 위해(Polution & Risk)의 도시로 만들고 말았다. 더욱이 훌륭한 역사적 흔적이 사라지고, 고층, 고밀도의 건축물(인공산)이 무계획하게 건설되면서 도시경관의 파괴는 물론이고 생태계의 고리를 끊고 풍수로(風水路 : 風

路와 水路)의 차단과 변형된 진로와 공기오염과 수질오염 그리고 도시온도와 습도가 악화되고 말았다. 그 결과 대도시 서울은 오존(O₃)경보를 알리면서 노약자의 외출을 삼가고 있다.

2. 생태도시이론이 적용된 사례지

1) 노르웨이(Norway)의 Bergen

북유럽(Nordic)의 대부분의 국가(지역)에서는 자연을 중요시하고, 자연을 배경으로 문화와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생태적인 공간(도시, 마을, 주택 등)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공간중에서 Bergen을 택한 이유는 Bergen은 역사유적과 예술문화가 조화되어 세련된 도시를 창출하였기 때문이다. 자연 속에 폭 파묻혀 있는 도시, Bergen은 항구도시로서 역사적인 흔적과 지역의 전통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는 노르웨이 제2의 도시이다.

길이 2,000km인 해안선에는 해조류가 자라기에 적당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해양자원이 풍부한 곳이다. 그리고 빙하가 녹은 협곡 깊숙이 물이 차있다. 이것은 피오르드(Fjord)라고 하는데 물의 맑기가 거울같다. 뿐만 아니라 도시(지역)공간 구석구석에는 호수가 있어 도시가 습습하다. 특히 산정상에서 눈 녹은 물이 폭포 되어 퍼붓듯 떨어지는 모습은 자연의 극치인 동시에 생태계의 습도를 제공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굽이치듯 넓은 협곡에서는 시원한 공기가 이동(風)하고, 풍부한 수자원과 협곡의 숲은 생태공간에 신선한 생명력을 불어 넣는다. 도시공해(공기, 수질, 소음진동 등)보다 자연의 혜택(온도, 습도, 통풍 등)이 압도하는 Bergen은 생태공간적도시(생태도시)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사진 1). 시원한 바람(淸風)과 깨끗한 물(淸水)은 생태공간에 기본이다.

특히 Bergen은 도시전체가 하나의 유기체로 도시(지역)민의 다양한 활동과 구조를 자연의 생태계가 지니고 있는 다양성, 자립성, 순환성, 안전성의 원칙에 가깝게 계획, 설계되어 인간과 환경이 공존할 수 있는 생태도시의 개념을 만족시켜주는 도시이다. 즉 Bergen은 생태도시계획에 관점에서 보면 표 4의 도시 구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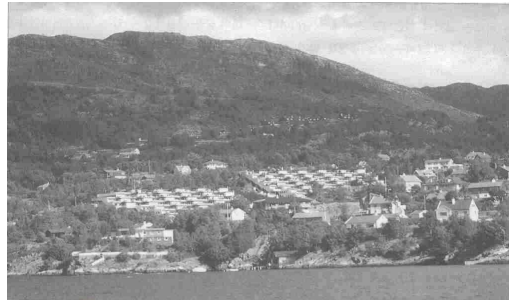


사진 1. Bergen의 전경

기능을 충족시켜 주면서 생태원리를 접목시키고 있고 자연과 역사 그리고 문화(예술)가 함께 어우러져 도시(지역)민에게 양질의 생활 터전을 제공하고 있는 Bergen은 국토 이용을 자연환경관리와 인공환경관리에 일상생활을 연계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역사의 흔적, Bryggen(Bryggen)의 전통건축문화는 도시공간속에서 조상들의 자연생태에 관한 지혜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지혜를 경험하게 한다. 즉 도시체계를 순환시키는 핵심적 요소가 된다. 지금도 생생하게 역사를 느낄 수 있는 도시가 Bergen이다. Bergen은 노르웨이의 민족전통이 고급스럽게 보존된 역사도시이고, 자연생태가 원활한 생태도시라고 할 수 있다(현영조, 2001). 특히 Bergen은 자연환경의 영향으로 바다가 주요한 생활터전이 되기 때문에 민족성이 거칠다고 할 수 있다.

표 4. Bergen의 생태공간구조와 기능

구 조	기 능	생태원리
자연환경 (인간적 공간)	토지이용 : 농지부족으로 수(水)공간 바람 : 공기이동 — 쾌적성 물 : 자원 및 습도 — 쾌적성	삶의 터전 (生死의 순환)
문화환경 (인공적 공간)	의, 식, 주 생활의 질적향상 휴식, 휴양, 건강으로 복지향상 예술(음악가 Grieg의 역할 : 정서함양)	

이와 같이 자연환경은 물리적인 형태(지형)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심성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 이것은 한국 전통적인 풍수지리의 하나인 택리지에서 주장하는 논리와 같은 것이다. 따라서 지리(地理 : 땅의 이치)의 영향

을 받고 있는 버겐의 사람들은 거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노르웨이의 역사상 바이킹(Viking) 문화가 발생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흔적이 브리겐(Bryggen)이다. 이러한 거친 민족성을 음악가 그릭(Grieg)의 예술이 순화시킨다. 즉 주어진 자연환경에 예술 문화가 접목되어 생태공간의 도시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힘은 생태적 경험과 문화적 경험이 접목된 공간이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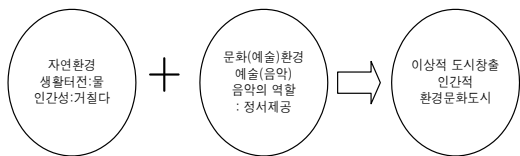


그림 3. 버겐(Bergen)의 도시공간

2) 일본, 동경 다마신도시(日本, 東京 多摩新都市)

다마신도시는 개발 전에 지형의 모습을 최대한 살리려고, 구릉지를 비롯한 지형의 특징적인 요소와 자연생태계의 조건들을 면밀히 조사하고 연구하였다. 그 당시 도시계획 및 도시설계 그리고 조경과 건축을 동시에 연계시키면서 개발에 착수한 일본의 대표적 신도시이다. 도시설계가와 건축가는 물론 다른 분야의 전문가까지도 참여하여 계획한 공동작품이다.

예컨데 생물학자에 의하여 개발전에 서식했던 동식물에서부터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미생물 까지도 조사, 분석 하였다. 뿐만 아니라 토양까지도 면밀히 조사하여 과학적인 접근으로 이 계획을 체계화하여 개발한 신도시이다. 이와 같이 면밀하게 사전에 준비를 완료한 후 토목공사중에 흙의 이동을 과학적으로 계획하여 실시하였다. 우선 표토는 영양분이 많은 흙으로서 벗긴 후 다른 곳에 적재하고 지표하부에 터파기와 정지작업에서 나오는 땅속에 묻혀있던 속흙은 매립과 정지작업에 사용하였다. 건설중에 건축공사와 조경공사를 연계시키고 표토를 다시 사용하여 식물이 잘 자랄 수 있게 함은 물론이거니와 동물과 곤충 그리고 미생물까지도 생태계의 부활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도

시개발을 하였다고 한다. 즉 신도시를 체계적(Urban system)으로 건설하였다. 물리적인 계획이 아닌 자연상태계를 존중하면서 자연과 더불어 살기위한 수단을 강구한 것이다.

그래서 다마신도시는 쾌적하고 지구적인 설계(Global Design)로 일본 땅에 세워진 새로운 생활공간을 만들어 낸 좋은 예라고 생각한다. 흙이 있다면 조형적으로 주변환경과 부조화적인 부분이 있으며 국적미상의 건축물들이 너무 유럽의 그것을 모방하여 일본적인 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미술과 음악 그리고 무용을 감상하고 즐길 수 있는 주생활공간을 예술화하는 작업이 미숙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 때문에 도시경관의 질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즉 문화(예술)공간의 부족이다.

VI. 결 론

생태도시이론은 부분적으로 적용되어 좋은 평가를 얻고 있지만 도시가 갖고 있는 제약적 요소와 개발중심의 사고로 인하여 그 효과 및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동양적 자연관이면서 전통적 토지이용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풍수지리의 경험적 과학을 현실에 적용하고자 한다. 주로 풍수를 음택과 양택의 개념으로 이용하면서 건축과 지리학적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환경학적으로 접근하여 해석하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자연의 질서를 존중하는 생활은 자연과 공생공존하려고 하는 사상을 만들게 한다. 바람과 물 그리고 땅의 이치를 다루는 지혜가 풍수지리사상을 낳게 하는 동기가 된다. 특히 우리 민족은 농경문화의 경험으로 자연에서 모든 것을 얻었고, 자연순환법칙에 의하여 생활계획을 수립하고, 하늘과 땅의 조화인 천인합일(天人合一)을 중요시하면서 음양오행설(사상)과 더불어 풍수지리를 자연생태계의 이치로 해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으로 우리 풍수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었다.

첫째, 원시적 풍수지리사상, 둘째, 불교적 풍수지리사상, 셋째, 유교적 풍수지리사상, 넷째, 실학적 풍수지리사상, 다섯째, 독창적 풍수지리사상으로 변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을 총괄적으로 설명한다면 풍수지리는 천지인상관적기론(天地人相關的氣論)과 자연비보설(自然裨補設)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풍수지리사상은 현재 대두되고 있는 생태도시이론(生態都市理論)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자연관이 된다. 특히, 한국전통적으로 풍수지리사상은 에코시티(Eco-city)의 장단점을 연구 분석하고 접목시킴으로써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세련된 도시(공간)개발」 방법으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여 도시(공간)계획 및 설계에 기초적인 이론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한편, 풍수지리관점에서 생태공간을 해석하는 범위를 최소단위공간에서부터 도시공간까지 포함한 모든 지구공간이 가변적으로 적용하여 이론과 실제(경험)를 연계시킨다. 그러나 풍수지리 관점에서 본 생태도시(이론)의 문제점은 그것이 이상적이긴 하지만 너무 인위적이고 이론적이라는 점이다.

반대로 생태도시시각에서 한국적 풍수의 접목가능성을 타진한 결과 실용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중국, 한국, 일본의 대표적으로 풍수지리가 적용된 도시로써 베이징(北京), 서울, 도쿄(東京)와 같은 역사도시는 생태도시의 구성조건을 갖춘 풍수적 도시임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인류최초의 도시는 생태도시이론을 들추지 않더라도 완벽한 생태공간이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 고대도시는 「생태도시의 원형」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적 풍수지리사상의 경험과 에코시티(Ecocity)라고 하는 공간이론의 장점을 접목시키면 새로운 도시공간에 대한 이론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한국적 풍수지리의 핵심인 천지인상관적기론과 지덕비보(知德裨補) 또는 자연비보라고 하는 비법(秘法)과 생태도시의 환경효율(環境效率)과 접목시켜 「풍수생태공간(Poongsoo-Ecospace)」이라는 복합적인 이론을 정립하게 된 것이다. 이는 풍수생태공간론(風水生態空間論 : Poongsoo-Eco spatial

Theory)은 인간적 환경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초 이론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풍수지리라는 특수한 동양적 경험에서 얻은 과학이라는 특성상 제한적 요인이 많았고, 중요한 내용이 심도 있게 연구되지 못하였다. 즉 사례의 실증적 답사의 제약으로 충분한 연구가 되지 못하였다. 이런 점은 이론과 실제를 고문헌을 통한 사적연구와 현대문헌의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보완하여 향후 더욱 더 깊은 연구가 계속 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만 풍수지리를 건축과 지리학적으로 접근하는 사례에 반하여 환경적으로 분류하여 연구한 것은 본 연구가 갖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생태도시의 접근방법도 현실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여 무조건 생태도시이론을 모든 지역에 대입하려는 계획과 개발에 반해서 향후 도시개발에 신중을 기하고 풍수지리라는 우리 지형의 경험적 과학과 생태도시이론을 접목하여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끝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친환경적」이라는 슬로건은 이상적이긴 하지만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전제한다. 따라서 지속가능성과 친환경적인 개발이라는 슬로건대신에 환경의 중요성과 문화의 가치성을 강조한 「세련된 개발」이라는 언어가 우리 지역풍토에 더 잘 어울리기 때문에 현실적인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궁극적으로 시도하려는 「생활공간의 예술화」를 목표로 「인간적 환경문화도시(人間的 環境文化都市)」의 창출의 시작인 것이다.

인 용 문 헌

- 김광언. 1998. 풍수지리. 대원사.
 김귀곤. 2001.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생태도시가 필요한가. 환경과 조경 : 121.
 김일태. 2001. 생태도시의 이해. 다락방.
 김항배. 1997. 실용풍수지리-실화와 이론-. 일산출판사.
 老子 : 權五鉉讀解 1991. 일신출판사.

- 민경현. 1998. 숲과 돌과 물과 문화. 예경.
- 박시익. 1997. 풍수지리 와 건축. 경향신문사.
- 이동근외. 1996. 생태도시 조성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사업. 환경부.
- 이익중. 1994. 길한터 흉한터. 동학사 : 17-23.
- 이중환(이영택역). 1978. 택리지. 삼중당.
- 이중환. 택리지(원문). 이영택역.1973. 삼중당.
- 이행렬, 2000, 경관미학, 상명대학교 p183.
- 이훈중. 1970. 국학도감 수선전도(首善全圖). 일조각.
- 조진상. 2001. 유럽의 환경친화적도시개발. 도서출판 월산.
- 주남철. 2000. 한국건축사. 고려대학교 출판부.
- 최원석. 2000. 도선국사 따라 걷는 우리땅 풍수기행. 시공사.
- 최창조. 1990a. 좋은땅이란 어디를 말할인가. 서해문집.
- 최창조. 1990b. 한국풍수사상의 이론과 실제. 서해문집.
- 최창조. 1998a. 북한문학유적답사기. 중앙 M&B.
- 현영조. 2001. Building culture. (주)정성 D&M.
- 현영조. 1997. 집짓는 이야기 요철요(凹凸凹). CA현대건축 : 19-20.
- Richard Register(鶴田榮作역). 1993. Ecocity Berkeley. 工作舎.
- 上草鋼一. 2001. 風水とまちづくり戦略. 日本地域社會研究所.
- 前田豪. 1993. Hosing landscape. 日本造園學會.

接受 2002年 11月 18日